

MISSION ECUADOR

에콰도르 장다솔 전수미 선교사의 43번째 선교소식 2018년 10월

사랑하는 동역자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적도의 나라 남미 에콰도르에서 문안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늘 저희 사역과 가정을 위해 새벽마다 무릎꿇고 기도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님의 사랑과 기도의 힘으로 드디어 이번 10월에 씨넝까이 교회 및 어린이센터가 완공되었음에 또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사역시작

아직 건축이 진행되던 때에, 동역할 현지인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급식과 방과후 수업을 통한 어린이 사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방법을 찾던 중 9월부터 씨넝까이의 뽀빠스 데 로싸 라는 읍의 마을 회관에서 150여명의 아동들과 함께 토요일 활동과 급식, 분반공부 그리고 화, 목, 토요일 방과후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산도 충분치 않고 에콰도르에서도 카톨릭 색깔이 아주 짙은 지역 중의 하나인 이 인디오 산골 지역에서, 저희의 사역에 대해 불신과 반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부모가 변하고 지역이 변화될 줄 믿고 오늘도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의 현지인의 동역으로 시작된 사역이 이제 12명 이상의 자원봉사자 그룹이 조직되어서 매주 꾸준히 헌신과 봉사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엥카 다운타운에 위치한 디에스 데 아고스토 시장 상인들의 자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급식을 제공하는 사역도 시작하였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어린이사역 시작



방과후 수업(영어 1, 2반, 수학 1, 2반)



디에스 데 아고스토 시장 어린이 사역



함께 사역을 돕는 자원봉사자 그룹

어린이센터와 교회 완공 ~~

사실 건축 부지 구매부터 건축비를 모금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건축허가과정의 지연과 어려움들, 또 그 이후의 행정적, 재정적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때마다 길을 열어주셨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 주셔서 드디어 이번 10월에 씨넝까이 어린이센터와

교회가 완공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완공된 어린이센터와 교회 모습



방과후교실



예배실

여기까지 인도해주시고 예비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재까지는 정식 예배의 모습이 갖추어 지지 않았고, 사역자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 지역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중보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10월 중보기도제목

1. 예배와 어린이결연사역을 위해 -

새롭게 완공된 센터와 교회 건물에서 하루 속히 공식적인 예배가 드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 1월부터 300여명의 아동들을 섬기며 결연사업과 지역개발 사역이 원활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2. 동역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

지금은 존 하이로 목사와 인근 누에바 칸손 교회의 성도들의 자원봉사로 급식과 토요일 분반공부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학급의 방과후 수업(영어 1, 2반, 수학 1, 2반)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씨넉까지 지역의 학부모들 중심으로도 자원봉사자 그룹이 속히 만들어져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며 예배를 회복하는 동역자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3. 선교사 가족들을 위해 -

공대를 졸업한 큰아들 장한이는 현재 캐나다 씨리 지역에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장하늘은 공대 2 학년에 재학중입니다. 두 아들 모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둘째 아들의 학비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영,육,혼의 강건함을 위해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적도의 땅 에콰도르에서 장다슬 전수미 올림